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비무장지 대(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 고 제안하였다. 문 대통령은 비무장지대 의 평화 구축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얻는 것과 동시에 '세계가 가치를 공유해 야 할 문화유산'이라고 강조하였다. '남 북 간에 평화가 구축되면 북한과 공동으 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것'이라고도 언급하였다.

문 대통령의 DMZ 평화지대화 제안이 보다 현실성을 갖는 이유는 지난해 9·19 남북 공동선언에 따른 군사 분야 합의서 의 영향이 크다.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는 비무장지대를 둘러싼 육해공 지역에서 남북 간 우발적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군 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큰 틀의 합의를 이 루었다. 군사 분야 합의서 체결 이후 이

한반도 비핵·평화에 시동 건 정상 외교

지역에서 남북 간 충돌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그래서 주목할 만하다.

우리 측은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 간 합 의 사항인 JSA의 비무장화 작업과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파주·철원·고성 지역에서는 시험 폭파된 GP 장소를 따라 평화의 길 조성 작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지난 6월30일 한국 을 방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 정은 국무위원장과 드라마틱하게 만날 수 있었던 것도 군사 합의에 따라 판문점 지역에서 왕래가 수월해진 것에 기인한 다. 판문점 지역의 자유 왕래까지는 아 직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많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변해 가는 남북 접경 지역의 모습 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다.

이처럼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비무장 지대를 평화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 은 역대 정부에서 늘 있어 왔다. 박근혜 정부 때는 비무장지대 한복판에 DMZ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한다는 구상을 발 표하기도 하였다. 접경 지역을 둘러싸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황이 여전한 상황 에서는 이러한 작업이 불가능했기 때문 에 실현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문 대통 령의 언급처럼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 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하고 국제사

회와 협력하여 남북이 한반도 번영을 공 동으로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꿀 수 있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비무장지대는 남북의 철책을 넘 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평화·생 태·문화의 보고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 에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국제 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킨 것은 적절했다 고 본다. 특히 아직 한반도는 수십만 발 의 지뢰와 세계 최대의 군사적 화기가 대 치하는 정전협정 체제 아래 있다. 비무 장지대는 정전협정에 따라 민간인 출입 이 통제되고 유엔군사령부가 관리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다. 유엔의 협조를 받 지 않으면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활 용하는 문제 자체가 불가능하다.

물론 비무장지대만 평화적으로 관리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 착 과정과 연결되어 있으며 한 단계로 설 정되어 있다. 이번에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시한 전쟁 불가, 상호간 안전 보장, 공 동 번영의 3원칙에 따라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고 한반도 전체의 긴장 완화와 화 해 협력이 전개될 때 평화지대화 작업 역 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3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 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유연한 접근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 로 하면서 단계적인 방식을 통해 북한의 신속한 조치를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이 다. 체제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북 한에게 먼저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보다 는 상응하는 조치들을 촘촘히 만들어 연 착륙시켜 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해 법이 될 수 있음은 지난 30여 년간의 협 상 경험이 말해 주고 있다. 북한의 핵 동 결에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북한이 완전한 핵 폐기를 유도해 내야 함은 자명하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3차 북미 정상회 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한편으 로 대북제재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과 '지켜보자'는 신중한 입장도 견지하고 있 다. 우리로서는 앞으로 2~3주 내에 개최 될 북미 실무 협상을 지원하면서 북미가 유연한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조치들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 북핵 문제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 대화, 남북 관계의 발전과 공동 번영의 이슈들이 상호 선순환하면서 한반도 평 화 발전을 이끌어 나가길 기대한다.

社 說

한전공대 설립 '다 된 밥에 재 뿌리지' 말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추진 중인 한 전공대 설립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그제 나주혁신도시 한전 본사에선 광주 시와 전남도, 한전과 나주시 관계자 및 지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전 공대 설립 비전 선포 및 범시도민지원위 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출범식에서 대학 설립 용역사인 A.T 커니 측은 한전공대 마스터플랜을 확정 해 공개했다. 마스터플랜에는 2022년 3 월 개교를 목표로 전력·에너지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담겨 있다. 한전공대 설립에 따른 생산·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2조7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한전공대 설 립에 힘을 실어 줄 범시도민지원위원회 가 출범한 것이다. 한전공대 유치전을 벌 이면서 그동안 소원했던 광주시와 전남 도 역시 다시 손을 잡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산업부와 지 식경제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범시도

민지원위원회는 지역대학 총장과 기업인 ·정치인 및 출향 향우들이 대거 참여해 5 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연구소 유치와 클 러스터 조성 지원에 역량을 모으기로 했 다. 오늘은 서울에서 한전 주관으로 한전 공대 학교법인 창립총회를 갖고 이사회 구성과 정관 등을 의결한다. 한전은 창립 총회를 마치고 교육부에 학교법인 설립 을 신청할 예정인데 3개월 내 처리하게 돼 있어 연내 법인 설립이 마무리 될 예정

이처럼 한전공대 설립 작업이 착착 진 행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한전공대 설립 운영을 방해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국정감사나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딴지를 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지역민들은 과거 호남에서 포 항공대나 울산과학기술대 설립에 반대 의견을 낸 적이 없다. 자유한국당의 한전 공대 설립 반대는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처사다.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행위를 즉 각 중단하라.

광주형 일자리 지역 인재 문호 대폭 확대를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합 작법인인 주식회사 광주글로벌모터스 출 범을 앞두고 지역 인재 채용에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광주 시 관계자는 엊그제 기자간담회에서 "광 주글로벌모터스의 당면 과제는 크게 인사 (조직체계 확정)와 공장 설립 문제가 될 것인데 인사의 경우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채용 전문회사에 외주를 주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밝혔다.

하지만 많은 사람의 관심이 쏠리고 있 는 지역 인재 채용 우대와 관련해서는 '광주형 일자리라 해서 광주사람들만 뽑 을 순 없는 일'이라며 "지역 가점을 어느 정도 부여할 것인지 법적 검토 등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용 을 비롯한 회사 주요 현안의 큰 틀은 1, 2 대 주주인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논의 해 방향 결정이 이뤄지고, 회사 경영진은 이사회를 거쳐 실행하는 방식이 될 것"이 라고 덧붙였다.

광주시나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외부 인 력 채용 전문회사에 직원 선발을 맡기기로 한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 하겠다. 그러나 채용 방식에서 우대 가점이 대폭 부여되지 않으면 자칫 지역 응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 다. 가점 제도의 맹점은 지역 수험생들이 일정 평가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그 빈자리를 타 지역 출신 응시자로 메울 수 밖에 없다는 데 있다. 이런 점을 들어 광주 은행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기업들은 지역 채용 할당제를 운용하고 있다.

광주시나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지역 일 자리 총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 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광주형 일자 리'는 어디까지나 광주 청년들에게 일자 리를 제공한다는 대전제에서 비롯된다.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직원 채용에서 지역 인재를 우대하고자 하는 고민이 담기지 않는다면 존립 기반을 잃게 될 수도 있다 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종교칼럼

태풍이 지나갔다



황성호 영암 신북성당 주임신부

여름이 지나고, 가을 장마가 오더니 태 풍 '링링'이 우리나라를 지나갔다. 풍성 한 한가위를 맞이하려는 우리 마음이 거 센 태풍의 영향으로 걱정과 염려로 바뀌 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는 혼란스러웠 다. 그러나 명절 연휴 동안 맑은 날씨와 함께 커다랗게 뜬 보름달을 보면서 우리 는 마음을 달랬고 희망을 되새기기까지 했다. 태풍의 위력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 하고 혼란스럽게 했지만, 세상을 뒤엎었 던 태풍은 다시금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 도록 도왔다. 우리의 눈을 흐리게 했던 먼지와 매연은 속시원하게 쓸어가 버렸 고, 속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탁했던 바 닷물도 위아래가 뒤엎어져 깨끗한 모습 을 회복했다.

그런데 1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태풍 '타파'가 지나갔다. 다시 한 번 우리 가 자연 앞에서는 아주 작은 존재라는 미 약함을 느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아 침, 하늘을 바라본 순간, 그렇게 맑은 하 늘을 본적이 없을 정도로 깨끗했다. 이날 필자는 점심 식사를 위해 영암읍내로 향 했는데, 얼마나 깨끗했는지 멀게만 보였 던 월출산이 정말 가깝게 보였다. 월출산 이 그동안 감추고 있던 암반들 하나하나 를 일일이 셀 수 있을 정도였다. 태풍이 지나가면 피해만 남는 것은 아닌 듯 싶

기상청에서 태풍의 장단점에 대해서 보도한 적이 있다. 태풍의 단점으로는 시 설물에 막대한 피해, 많은 이재민 발생, 농작물 유실 및 침수 그리고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고 한다. 이와는 달리 태풍의 장 점으로 해수 순환, 바다 생태계를 활성 화, 물 부족 현상 해소 그리고 지구 남북 의 균형 있는 온도를 조절한다고 한다. 태풍 관련 보도에서 필자는 장점 중에 '해수 순환' 과 '바다 생태계의 활성화'라 는 부분에 관심이 갔다. 태풍의 위력은 물속을 뒤엎는다고 한다. 순환되지 않는 물, 그러니까 강물은 녹조가 생겨 썩게 하고 바다의 경우는 심한 적조로 인해 산 소 공급이 차단되어 물고기들이 폐사하 기까지 한다.

그런데 태풍으로 인해 물속이 순환되 어 녹조는 물론 적조 현상까지도 제거해 물은 생명을 되찾는다는 것이다. 자연을 거슬렀던 우리 인간 존재, 물길을 막고 산을 깎아내며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도 록 파헤쳐버리는 우리 존재는 태풍과 같 은 자연 재해에 불안감을 느낀다. 왜냐하 면 지금까지 이루었던 것을 다 잃어버리 지 않을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연에 순응하며 흘러가는 대로 맡기는 자연의 일부들은 태풍의 영향이 잃어버 려 가던 자기들의 생명을 되살릴 수 있다 는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다.

최근 두 달 동안 우리는 엄청난 태풍을 경험했다. 진보와 보수의 싸움인지, 촛 불 혁명과 기득권의 대립인지 법무부 장 관이라는 존재를 통해 엄청난 위력의 태 풍을 걱정과 염려의 마음으로 바라보았 다. 가짜 뉴스에 흔들리기도 하고, 기득 권을 당연하다는 식으로 살아왔던 이들 의 모습에서 분노하기도 했다. 또한 한 가족을 난도질까지 하는 처참함을 저질 렀던 거만한 이들의 '인면수심'에 놀라

워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사회에 뒤엎을 수 있는 하나의 태풍이 아닌가 싶다. 해명하 기 위한 기자 회견에 이어 청문회까지 거 치면서 태풍의 위력은 점점 커져만 갔 다. 그런데 태풍이 지나간 것일까? 법무 부 장관이라는 태풍으로 사회 곳곳이 혼 란스럽기까지 한다.

그런데 태풍의 장점으로,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고 가려버렸던 우리 사회의 적 폐를 온통 뒤엎어 버린 듯 하다.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타락했던 우리 사 회의 숨겨진 어둠의 세력들의 속내가 태 풍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에 절실했던 활성화와 순환이 우리를 숨 쉴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을 엿본다.

2000년 전 예수의 존재는 당시 기득권 을 유지했던 이들에게 하나의 태풍이셨 다. 당시 사람들의 눈을 가렸던 기득권의 거만함은 예수의 정의와 사랑과 희생으 로 드러났다. 인위적으로 욕망을 분출해 채워지지 못하는 탐욕을 부렸던 거만한 자들의 속내까지 드러내셨다. 그런 예수 께서 지금의 시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 신다.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기 고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수사의 오답 노트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소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이 과학적으로 누구인지는 알 수 있게 되었 다. 화성 연쇄 살인은 1986년부터 4년 7 개월 동안 1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 행하고 살해한 최악의 미제 사건이다. 공 소 시효가 종료되어 처벌은 불가하지만 관련된 불안감들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되 었다는 측면 등 에서 큰 의미가 있다.

경찰은 2011년부터 중요 미제 사건 전 담팀을 편성·운영하여 현재까지 미제 52 건을 해결하고 79명을 검거했다. 실무상 으로 중요 강력 미제 사건이란 살인 사건 발생 후 5년간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하 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건 은 현재 268건이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59건, 부산 26건을 비롯하여 광주·전남 18건 등 이다. 아직 적지 않은 미제들을 수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화성 사건을 통 해 수사 실책의 존재 여부를 검토해 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경찰의 미제 사건 수사에 성과가 나타 난 배경에는 범죄자의 DNA를 채취하여 보관할 수 있는 법제도와 DNA를 이용 할 수 있는 과학 수사의 발전을 지목할 수 있다. 대검에는 2019년 8월 기준 16 만 9000여 명의 강력 범죄자 유전자 정 보가 채취·보관되어 있다. 이번에 활용된 DNA 분석 기법은 연쇄 반복을 통해 염 색체의 특징 부분을 증폭시키는 방법이 다. 100만분의 1미리그램의 시료만으로 도 개인 식별이 가능하고 시료의 부패와 변형에 대한 분석 허용성도 향상되었다. 착오 확률은 100억 분의 1 이하이다.

경찰과 이춘재는 여러 차례 직간접적 으로 만남을 가져왔다.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할 당시인 1987년부터 1991년 사이 에 경찰은 이춘재를 3차례 조사했다. 이 춘재가 강간 살인으로 체포되었을 때 경 찰은 그의 화성 본가를 압수수색했다. 본 가는 연쇄 살인 사건 발생지와 인접해 있 었다. 청주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하는 수 법 등은 화성 연쇄 사건들과 상당한 유사 점이 있었다. 그런데 화성 수사 본부와 청 주 경찰은 연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내가 답을 아는 문제를 다른 사람이 틀 리는 것을 보면 한심한 생각이 들듯이 범 인을 알고 보면 수사의 허점이 보이기 마

련이다. 이춘재란 정답을 보고 당황스러 운 것은 혈액형이 O형이라는 것이다. 그 전까지 '화성 살인마'에 부합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B형이었다. 경기남부청 은 브리핑에서 기존 수사 결과의 혈액형 은 피해자의 것인지조차 불확실한 것이 었고 심지어 그렇게 특정한 이유가 불분 명하다고 답했다. 제1의 전제가 오류인 문제는 풀고 또 풀어도 오답만 나오기 마 련이다.

이론적 함정에 빠졌을 가능성도 엿보 인다. 연쇄 살인들은 각 범인들 마다 일 정한 패턴을 반복하는 특성이 있다. 대상 을 기준으로 면식과 비면식으로 구분하 고 동기는 사디즘적·경제적·아동형으로 분류한다. 화성 사건들은 비면식 형태였 고 처제 살인은 면식 사건이었다. 한국보 다 연쇄 살인 사건의 역사가 앞서고 형태 가 다양한 외국의 사레 연구들은 연쇄 살 인의 경우 대상을 바꾸지는 않는다는 점 을 강조한다. 경찰은 당시에 이러한 경향 성에 대해 과잉 신뢰했던 것 같다.

경찰이 이처럼 중대한 착오를 일으킨 이유는 무엇일까. 화재 현장에서 불 끄고 싶지 않은 소방관이 없는 것처럼 살인범 을 잡고 싶지 않은 경찰은 없다. 경찰은 사건이 장기화하면 강한 체포 욕망을 경 험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비과학이 난무

하게 될 여지가 생긴다. 청주 사건에서는 당시 화성 수사본부가 그동안의 수많은 시행착오를 회피하기 위해 대상 특성이 다른 사건은 원천 배제했던 것 같다. 그 러나 대상에서는 면식과 비면식의 차이 가 있었으나 사디즘적 형태로 보면 화성 과 청주는 동치의 수준이었다. 수사의 영 역에 비과학은 지나치게 수용한 반면 분 명한 개연성은 간과한 것이다.

한번 틀린 문제를 열심히 복습하는 학 생이 성적이 오르듯 경찰 수사의 발전을 위해 이번에 발견된 문제점들을 절치부 심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이춘재 오답 노트'를 작성하고 다른 난제들의 해법에 도 응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금번의 교훈은 수사 현장에서 비과학적인 것은 물론이고 제아무리 확실한 과학적 증거 라 해도 그것에만 치중한 확증 편향은 주 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향후 미제 수사에 는 기존의 과학적 추정적인 정보를 반대 로 고려하거나 나아가 강제해 보는 방법 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틀린 것 을 인정하는 순간 안보였던 것들이 시야 에 들어오는 때가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의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반성적 사고를 동원해야할 것이다. 그리하여 앞으로 미 제 사건 해결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를 진심으로 바란다.

無等鼓 🕠

돼지 박사

인간과 밀접한 가축으로 돼지·닭·소·개 를 들 수 있다. 소는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농촌에서 재산목록 1호로 꼽 혔다. 거의 가족과 동일시되는 가축이 다.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시골에서 소는 그야말로 가정 경제의 기둥이었다. 송아지가 태어나면 팔아서 아들 대학 등 록금이나 결혼자금으로 쓰는 것이 보편 적인 일이었다. 황영성 화백의 '가족 시 리즈'에 소가 등장하는 것처럼 화가들이 소를 즐겨 소재로 삼는 것도 이런 이유일

음식적인 측면에서는 단연 돼지고기가 으뜸이 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

민 1인당 평균 육류 소비량을 보면 돼지고 기가 27kg으로 1위이고, 닭고기(14.2kg) 와 소고기(12.7kg)가 그 뒤를 이었다. 삼 겹살 요리는 이미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

의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돼지의 가치 는 무한대이다. 돼지의 DNA 구조는 동 물 중 사람과 가장 유사한 데다, 특히 심 장은 인간의 것과 싱크로율이 90%에 이 른다. 돼지 심장은 동맥경화에 잘 걸리고 심혈관에 혈전이 흔하게 생길 뿐만 아니

문 화

에게 K푸드로 인식된 지 오래다.

편집국안내

제 부 220-0663

부 220-0632

편 집 부 220-0649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치

라 심장 위치와 크기 및 혈관 구조 등 해 부학적으로도 인간과 흡사하다. 이 때문 에 한국 식약처나 미국 FDA 등은 약품 이나 의료기기 승인 시 돼지 심장 실험을 의무화화고 있다.

심장 질환을 다루는 순환기내과나 흉 부외과에서는 돼지 심장으로 실험하고 연구해 인간 치료에 활용한다. 심혈관 질 환 국내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정명호 전 남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의 별명은 '돼 지 아빠'이다. 정 교수의 주도 아래 순환

기내과 연구진이 지난 20여 년 동안 실험한 돼 지는 모두 3250마리나 된다. 이는 실험용 돼지

세계 최다 실험이며, 이 실험을 통해 박 사학위를 받은 '돼지 박사'도 21명에 이 른다. 정 교수의 연구실에는 돼지에 대한 고마움으로 하나 둘 모으기 시작한 돼지 인형이 무려 3000개나 있다고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일각에선 돼지가 멸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나오는 판이다. 정부와 축 산 농가가 총력을 기울여 작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으면 한다.

/채희종 사회부장 chae@kwangju.co.kr

光则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부 220-0661

⟨FAX 222-8005⟩ (FA X 222-019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부 220-0692 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울 지사 02-773-9331 부 220-0633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